

忠烈公遺墟碑閣

西歷一九八五年
歲次乙丑十月廿九日
宣達通告

懸板 大宗會常任副會長 崙 會 謹書
規格 가로: 6尺 2寸 · 세로 1尺 2寸



重建된 遺墟碑閣

檜谷洞遺墟碑閣竣工

〔續報〕前九號에서 이
通報한 바 있는, 檜谷洞 遺墟
碑閣은 創建後 百七十餘 年동

안, 修治가 不實하고 長久한
風霜에 材木이 腐蝕되고, 椽
瓦가 墮落되어 後孫으로 하여
금 畏懼之心을 禁치 못하던
中, 지난 四月二十八日 總會
席上에서 이 問題가 討議되고,
그 豫算이 通過되었다.
이로서 技巧있는 數名의 木
手로부터 見積書를 接受, 檢
討한바 華城郡 長安面 錦衣里
에 居住하는 郡事公派 世鏞
譜冊 等의 記錄이 曖昧하여

憶測으로 推算해 왔는데, 今
番 破屋時에 露出된 上樑文에
依해서 明確한 證憑을 얻은
수 있었으니, 또한 甚히 多幸
한 일이었다.
上樑文의 記錄에 依하면 嘉
慶十九年 五月二十八日 乙卯
時에 移建上樑을 했었는데, 嘉
慶十九年은 即 淸國年號로서
이 純祖十四年(一八一四)甲
戌이니, 本會報 前號에 「七
五四年(英祖30)은 推理에서
生起한 誤算임을 于先 밝힌다.
이 때 移建造成都監은 前宣
傳官 永淳公이며, 助役에는
重玉 聲鶴, 鳩財에 鳳翼 等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원 以上은
納入한 宗親에게 無
償으로 配付 하오나
未納入한 宗親께서
는 빠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 告

忠烈公 遺墟碑閣 竣工式 및 忠烈公 配位 冷平國大夫人 竹州朴氏 壇碑改
堅 除幕式과 아울러 享祀를 다음과 같이 舉行키로 85년 10月 19日(土)
午後 3時에 大宗會 常務理事 및 執行部 連席會議에서 決議하였기 이에
公告하오니, 많이 參席하여 주시기 仰望하나이다. (個別通知는 省略하오
니 隣近宗人들에게 相互口頭連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日 時: 1985. 11. 20(水) 午前8時30分(陰10月9日)에 安東 陵洞
에서 忠烈公 享祀를 奉行하고, 아침 食事を 마친 후, 全
午前 10時에 미리 準備待期中인 巴士 3台에 分乘(陵洞
入口 다리 앞) 出發, 午前11時에 檜谷洞 到着
 1. 行事場所: 豐山邑 檜谷洞, 11月20日 午前11時 20分 부터 午後
1時 사이에 忠烈公 遺墟碑閣 竣工式 및 竹州朴氏先祖妣
壇碑 除幕式과 享祀를(今年에 限해서 할머니 享祀를 同
日奉行함) 禮畢함.
 3. 解 散: 20日 午後1時까지 모든 行事를 마친 후, 晝食을 하고
待期시킨 巴士에 乘車, 檜谷洞에서 午後 3時에 安東 市
外巴士 터미널에서 解散 各其歸家케 함.
- ※ 行事에 參席하실 宗人들께서는 11月 19日 陵洞 忠烈公
齋舍에서 宿食 要望합니다.
1985. 11. 1
安東金氏 大宗會 金長明 會 白

諸公이었고, 都木手는 前郎廳
權亨中이었다.
碑閣의 所立地가 傾斜가
가파른 丘陵의 中段이라, 後
面은 堅固한 岩石이 千古의
雄態로 沙汰의 念慮를 막아주
고 있으나, 前方의 土台는 崩
壞의 危險이 없는 바 아니므
로, 約 三米突의 높이로 石築
工事を 하였고, 二十個의 長
台石으로 階段을 만들어 昇降
을 便利케 하였다. 또 碑閣의
周圍에는 四九石으로 콘크리
트 巨牆을 쌓았는데, 높이가
四尺이요, 延長이 九十六尺이
며, 巨牆內에는 鋪道 부력을
갈아서 雜草의 亂生을 防止케
하였다.
여기에 所要된 總 工費는
歲維 甲戌朔在 辛卯時當 乙卯月即 仲夏日 今 戊午 移建上樑
拋樑 東半月山形萬丈高 拋樑 南三台案勢百代新 拋樑 西
洛水一帶生光輝 拋樑 北七星龍脈子孫賢 忠魂脩居宜卜
陽明 於斯碑閣期億萬世 地靈鍾好 人傑幾何 自此立柱
土木無災 自此上樑 山川呈吉 文武并出 將相之地
伏願 貧病憂無 一唯 望壽富貴兼三 謹以 酒果 恭伸 尚
饗

祝 發 展

- 副使公派 金 在 鳳
서울·城東區新堂洞三七二
一 二八七四
- 郡事公派 金 在 信
扶餘郡林川面豆谷洞
- 翼元公派 金 永 植
高敞郡孔音面七岩里七八一
- 按廉使公派 金 得 卿
東豆川市生淵一洞五〇一 2 / 4
- 密直司使公派 金 聖 會
서울·城北區三仙洞二街二八〇
電話: 七四二一九七四六
-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第七日安息日예수再臨敎會
牧師 金 寬 浩
서울·江南區方背洞九四七一
電話: 五八三一六二七九

환도(還島)에 반대한 세력
은 여기서 일소(一掃)하여 버
렸다고 보는 편도 성립된다.
그 점(點) 사대는 환도의 수
행(遂行)에 다행스런 것 같
이 보였다.

만일 명령은(세조명령) 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생
명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처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부
로(俘虜)로 할 것이다. 지금
출륙(出陸) 개경환도를 전례
(前例)와 같이 질질 끄는 일
이 없도록 하여라. 문무양반
(文武兩班)으로 부터 시골 백
성(文武兩班)으로 부터 시골 백
성이 이르기까지 전부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 또
신흥창(新興倉)의 쌀 일만석
을 배로 운반하여, 군량과 행
종(行從)의 식량으로 준비하
여라.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대병단(大兵團)이 국경을 넘
어 다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놀랄 것을 우려한다. 신속히
잘 전유(傳諭)하여 모든 도민
(道民)들로 하여금 안거낙업
(安居樂業)하도록 하고, 왕사
(王師) 임금이 거느리는 군사
를 맞이하도록 하여라.

도렌카 군(軍)이 출발하는
하루의 거리를 두어서 원종의
일행이 출발하였다. 十六日에
원종은 용천역(龍泉驛)에 도
착하여, 거기서 강도에 서 오
는 사자(使者)에 의하여, 임
유부가 주살(誅殺)되고, 이용
렬(李應烈), 송준비(宋君斐)
등의 무장들이 해도(海島)로
유배(流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정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것을 보고한 사자(使者) 자
신도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써
행해지고, 누구에 의하여 이
루어졌는지 알지 못하였다. 여
기에 의하여 원종도 심(謹)도
이장용도 처음으로 강도(江都)
가 동요(動搖)하고 혼란(混亂)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러나, 주살(誅殺)된 임유부
(林惟茂)는 물론, 해도(海島)

에 유배(流配)된 이용렬(李應
烈), 송준비(宋君斐) 등도 본
래 환도(還都)에 반대하고 있
던 무장(武將)들이어서 그
점으로 부터 생각한다면 원종
등이 강도에 들어오는 데 앞서
환도(還都)에 반대한 세력은
여기서 일소(一掃)하여 버렸
다고 보는 편도 성립된다. 그
점(點) 사대는 환도의 수행(遂
行)에 다행스런 것 같이 보
였다.

도렌카 군(軍)은 五월 二十
一日에 개경에 들어가, 승천
부(昇天府)에 주둔(駐屯)하고
곧바로 사람을 강도에 파견
하여, 임연의 처자를 잡았다.
하루 늦어서 원종의 일행도
개경에 들어왔다. 도렌카는 즉
각 환도를 실행(實行)할 것을
원종에 유폐하였다. 원종은 이
장용과 상의했으나, 이장용도
사태가 여기에까지 다다른

風濤

(10) 井上靖著
金峯會譯

시시각각으로 용이(容易) 하
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는 상
황을 전하였다. 도적(盜賊)인
지삼별초(三別抄)의 군사인
지말수 없는 자들이 갑판진
(甲津津), 초지진(草芝津) 벽
관정(碧瀾亭)의 세군매의 도
선장(渡船場)으로부터 본토에
 옮겨오는 백성들을 해상(海上)
에서 붙들려고 한다는 것이었
다.

다음 二十五일에도 역시 전
일과 거의 같은 수의 탈출자
(脫出者)가 개경에 들어 왔는
데,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삼
별초는 강도의 자처에,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禁止) 하는
포고문(布告文)을 내걸고, 거
민(居民)은 처자와 재보(財寶)
를 작은 배에 싣고, 강(江)을
진노는 배에 싣고, 삼별초의
병선들에게 잡히고 만다는 것
이었다. 도렌카는 자기가 인

났없이 홀몸으로 강가에 가
스로 도착하였다. 밤에는 본
토에서도 햇불이 타고, 강화
도에서도 햇불이 타고 있어
서, 한강물은 이상하게 붉게
물들었고, 대소의 선박들이
그 붉게 흐르는 강물에 퍼서
꽃고 쫓기는 양상이 바라보였
다.

二十七일 이른 아침, 원종
은 정자여(鄭子輿)를 강화도
에 파견하여 삼별초(三別抄)
를 효유(曉諭)하고, 자기 스
스로도 강화도와 지호지간
(指呼之間)에 있는 문수산(文
殊山) 중부(中復)의 문수사
(文殊寺)에 머무르고 있었다.
정오(正午) 가까이 궁성내(宮
城內)의 비침(妃妾), 시녀(侍
女)들의 일단(一團)이 강도
(江都)를 탈출하는데 성공, 승
천부(昇天府)에 이르렀다. 원
종은 오후 다시 장군 김지저
(金之氏)를 삼별초 선부(三別
抄 宣撫)를 위하여 강화도에
파견하였으나, 조금도 효과
가 없었다. 이날도 도렌카는 원
종에 출병(出兵)할 것을 독촉
하였는데, 원종은 二일 간을
한(限)하고, 그를 유예(猶豫)
하여 출병을 결(決)하였다.

삼별초의 군사에 휴행(携行)
시켰다. 이 삼별초 해산의 명
령에 의하여, 삼별초 내부에
있어서도 여러가지의 반아들
이는 조건을 내거는 자가 나
타날 것이 예상되어 그의 통
일행들은 파탄(破綻)을 초래
하지나 않을까 생각되었다.

三十一일 이상하게도 강물
이 잠잠하고, 강도에서 탈출
하는 대소의 선박은 아무 방
해를 받지 않고 강을 건널 수
가 있었다. 어제 일은 꿈만
같았고 삼별초의 병선은 한척
도 빠짐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부 자기들이 같이 배에 싣고
간 말(馬)에 올라, 강도로 향
하였다. 종자를 많이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삼별초를 자
구하는 일을 고려해서였다.
일행이 통과하는 자 부락에
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가
꿈 모습을 보이는, 늙은이의
말로는 몽고병들이 쳐 들어와
서 백성들을 죽인다는 소문이
있어, 부락민들은 전부 산속
에 숨어버렸다는 것이다. 또
만 부락에서 한 사람이 길가
에서 서 있는 젊은 사람이 눈
에 미어, 그에게 물어보니, 삼
별초가 자 부락의 남녀들을
징발하려고 해서, 부락민은 전
부 산속에 숨어 버렸다는 것
이다. 말하는 것이 전부 서로
달랐다.

강도 가까이 이르러자, 부락
민들은 부락에 있었는데, 하
늘을 우러르고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우는 자들의 모습
이 많이 보였다. 젊은 자들이
전부 삼별초에 징발되어, 배에
싣려, 삼별초와 같이 남으로
내려 가버렸다는 것이다. 남
편과 자식을 빼앗긴 여자들의
통곡소리가 땅을 진동하는느
낌이었다.

遞信部企劃豫算擔當官
按廉使 金君會
서울·鍾路區瑞麟洞一五四一
副使公派 金常元
서울·中區太平路二街三六一
翼元公派 金奎植
南原郡己梅面書道里
都評議公派 金浩山
義城郡點谷面峒
提學公派 金泰煥
清州市內德洞三〇一一二六
提學公派 金相協
서울·城北區東小門洞一街八六
都評議公派 金熙元
(一名 時甲)
서울·東大門區忘憂一洞七一
電話.. 四二二一四六八〇 三三

이상, 일거에 강화도의 거민
(居民)을 개경에 옮겨 버리는
편이 혼란을 막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 원종은 二十三일에 환
도를 행하라는 명령을 강화도
의 거민(居民)에 내렸다.

졸사(詔使)가 돌아와서, 삼
별초(三別抄)가 정면으로 환
도(還都)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때문에 그날 일찍
부터 강화도가 대혼란(大混亂)
에 빠졌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도내(島內) 몇 군데에서 봉화
(烽火)가 올라가고, 또 몇군
데에서 소규모(小規模)의 전
투가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다음 二十四일, 강화도의
거민(居民), 수백명이 몸에 입은
그대로의 모양으로 개경에 들
어왔는데, 여러 사람들의 입
에서 강도를 탈출하는 것이

솔하고 있는 군사를 풀어야
사태를 수습할 것을 서둘렀는
데, 원종과 심(謹)과 이장용
은 자기들의 손에 의하여 처
리할 것을 강조(強調)하고, 필
사적으로 도렌카 군(軍)의 움
직임을 막았다. 도렌카 군의
출동이 이 이상 더 삼별초를
자극하는 일을 극력(極力) 피
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본
래 삼별초가 이러한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은 도렌카의 대
군이 개경에 들어오므로써 기
인된 것이 틀림없었다.

이장용은 몽고에 입조한 일
행(七)백명과, 원종은 출영(出
迎)하기 위하여 강도에서 개
경에 와 있던 삼별초 정도의
장병을 강화도와 상대해 있는
본토의 여러 지점에 배치하여
강화도에서 탈출해 오는 자들
을 수용하였다. 탈출자들은 밤

이장용과 도모(圖謀)하여, 마
침내 삼별초 해산을 선포(宣
布)하기로 하였다. 사태가 이
상대로서는 가장 빨리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던지
명확한 일이었다. 고려의 위
정자(爲政者)들은 도렌카 군
(軍) 출동에 의한 혼란보다도
삼별초 해산의 편을 취한 것이
다. 원종의 조서(詔書)는 본
토측(本土側)에 붙들여 있던

또 한번 삼별초의 수뇌들과
만나서 국토가 이 이상 혼란
(混亂)에 빠지는 것을 저지하
고 싶었다. 이장용과 심이 강
화도에 갈려고 승천부(昇天府)
에서 배에 오른 것은 정오(正
午)가 가까워 시각이었다. 두
사람은 수명의 종자들을 데리
고 섬의 북단에 상륙하자 전



지난 七月十六日(安東郡) 豊山邑 榎谷洞에 모신 先祖妣 竹州朴氏 壇所에 隣近에 居住 하는 後孫 五十餘名이 모여 舊碑를 改竅하였다.

改竅을 해야 한다는 宗論이 있던지도 오래 되었으나, 여러 가지 事情으로 미루어 오다가 今番에 大宗會中央本部에서 備蓄金으로 製作하게 되었으

니 後孫된 者들로 하여금 多 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碑石은 烏石 A級으로 서 울 忘憂里의 東光石材에서 製 作하였다.

碑의 規模
 碑身: 高 五、一五尺 廣 一、八尺 厚 〇、八尺
 座臺 高 一、八尺 側 二、八尺 縱 二、〇尺 側 一、三(二)段石 前面은 牧丹 紋彫刻)

碑文 譯文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단비음기
 선조할머니 박씨의 본관은

冷平國大夫竹州朴氏壇碑陰記

先祖妣朴氏實竹州封冷平國大夫門下省起居郎知製誥蓋旌女自幼儀表窈窕言行賢淑內則篤烈女傳 等書夙夜慣讀孝事父母義親九族迨其年針績繡繪無不能通恒慕妣之德二十歸于吾先祖忠烈公府 君孝養舅姑禮待君子誠於奉先睦于族黨恩義使婢僕翰林學士公金官國大夫夫人欣喜滿面曰門運必昌翁 斯之慶振振也姻婭族戚咸稱頌曰富貴可圖官祿綿綿矣果若其言焉府君天挺智勇時際板蕩討平耽羅日 本皆有 大功封上洛君食邑一千戶生三男三女教以義方長男愷典法判書二男忻從父征日本有功上將軍 三男恂文科父征日本時潛登船以從及還加殿中侍御使上洛君諡文英長女適橫城趙竹官密直司事二女 適清州慶綏官判通禮門事三女適安東權允明官僉議評理三子生九男列在丞相提學高書之位其下總功 之親次第入朝政丞封君竭忠輔佐提學道伯勳精治政當時冠冕能並駕十五派子孫蔓延國中逮至李朝 名公巨卿相結以起千派分流萬支旁達莫不歸宗於府君此非府君積仁累慶之積朴祖妣仁厚溫順之德哉 府君墓在安東竹松洞近七百年守護香火無替而冷平國大夫夫人墓失傳已久其後設壇行祀雖表微誠壇無 碑碣焉吾先祖之後孫者誰無悚懼齋嘆之心他人所視豈不慚愧乎是以上年墓享日各派諸宗燭商協議齊 誠合力將壇碑諸宗微不肖以表其文不敢以不文辭遂不揆猥越謹撰次如右

素王誕降後四十二丙午秋七月 日 二十四代孫 重會 謹撰
 過年丙午之秋各派分擔爲先事業時郡奉公派分擔建立壇碑間有瑕疵故爲吾後孫者不逞悚懼之心今 纔更爲改造謹登焉 舊壇碑埋于壇墓 二十四代孫 (按原使公二十代孫) 衛會 謹書

冷平國大夫竹州朴氏壇碑

죽주(현축산박씨)요, 냉평국 서서 시부모님을 효양하시고 대부인을 봉하였으시며 문하시 낭편을 예로 대접하고 정성으 기거랑지계고 익정(益旌)의 로 봉제사하고 친척간에 화목 마님이라 어려서부터 용모가 하고 비복(중)들을 은혜로 다 요조숙녀같고 언행이 현숙하 스렀다. 한림당사공 금관국대 었으며 내척(현) 여자로서의 지 부인(시어머니)께서 기쁘신 켜야 할 법칙)과 열녀전 같은 일들로 말씀하시기를 우리집 글을 일찍 읽어내서 밤 늦도 가운이 반드시 용창하고 차손 무 탐독하고 부모님께 지성껏 들이 번창할 것이라고 하셨으 호도하고 온 집안안에 화목하 며 집안친척들이 다 칭찬하여 게 지냈으며, 출가할 나이에 말하기를 부귀를 반드시 누릴 이 르러서는 침선방직과 자수 것이며 벼슬이 길이어 나 와 그림에 능통하였으시며 항상 잘 짓었다고 하더니 과연 그 말과 같이 맞았노라. 충렬공 깨서는 천품이 지혜롭고 용맹 하셨다. 때에 나라가 어지러 있는데 탐라(제주도)와 일본 을 토벌하여 큰 공을 세우신 바 있어 상공안에 봉해지고, 식음 일천호를 받았다. 할머 니께서 세 아드님과 세 마님 을 낳으셨는데 인의에 지로서 교육을 시키시어 장남 선(愼) 은 전법관서 벼슬을 지냈고 둘째아드님 혼(衍)은 아버지 충렬공께서 일본 본토를 정벌 하러 가실때에 시종하고 공을 세워 돌아와서 상공군 벼슬을 선수하였고 세째 아드님 순(恂)은 문과에 급제하였으시며 아버지께서 일본 정벌시에 아 버님의 만류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배에 올라타서 중 군하고 돌아와서 전중 시어사 상락군의 가자를 받고 문영공 시호를 받았다. 큰 마님은 민 직사사 회성조씨 변(衍)에게 로 출가하였고 둘째마님은 판 통에문사 청주정씨 수(綏)에 게로 출가하였고 셋째마님은 안동권씨 윤명(允明)씨의 평리 에게로 각각 출가하였는데 세 아드님에게서 구남을 낳으신 데, 전부 정승, 제학, 상서 자리에 올랐다. 그 이하의 유 복지친들도 차례로 조정에서 어가 정승을 지내고 군(君)을 봉하여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임금을 보좌하여 제학과 도백 을 지내고 나라를 위하여 정 려하고 정치를 잘하여 당시 벼슬들을 누가 능히 진출 사 람이 없었노라. 十五과 자손 들이 국내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 번창하였다. 이조에 이 르러서도 이름높은 분들과 큰 벼슬들을 하신 분들이 계속이 어 일어났으며 여러 갈래로 분류하고 수만 가지로 번어나 서 번창하였으니 충렬공 부군 의 음덕에 돌아가지 않는 것 이 없도다. 평소 충렬공께서 적인 적덕하신 경사와 박씨 할머니께서 어질고 온순하시 덕이 아니고 이 무엇이겠는가 충렬공의 묘는 안동축송동 능 동에 있는데 근 七백 여년을 수호하여 오며 꿍꿍없이 향사 를 받들어왔으나 냉평국 대부 인의 묘는 실전한게가 이미 오래 이며 그 후 실단을 하고 향사 를 하여 비록 작은 정성을 표 하여 왔으나 단묘에 비갈이 없어 우리 선조의 후손된 자 로서 누가 종주스럽고 탄식하 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타인들이 보더라도 어 제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리하 여 연전에 행사때에 작 파 여 정성과 힘을 합하여 단비를 세우게 되매 여러 종인들이 불초 나에게 비문을 지으라고 하기에 감히 사양치 못하고 문사는 되지 않았으나 할수 없 이 외람함을 무릅쓰고 삼가 우(右)와 같이 찬하노라, 소 왕탄강후(공부자) 四十二병오 칠월 二十四대손 중회 근찬 지나간 병오년 가을에 작파 에서 분담하여 위선사업을 할 때에 군사공과 분담으로 전립 한 할머니 단비에 하자가 몇 군데 있어 우리 후손된 자로 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디지 못하여 오다가 이제 겨우 다 시 개조하여 삼가 세우노라, 구 단비는 단묘속에 묻었노라 二十四대손(안점사공 二十대손) 윤회 근서 서기 一九八五年 을축 七月 일 안동김씨대종회중앙본부 근수

大宗會 理事
大韓工業社
 代表 **金英植**
 (翼元公派)
 安東市大石洞二二二二
 電話二二二五五二

安東市宗親會 總務
동방신용투자
 理事長 **金東震**
 自宅 安東市 龍上洞 二二六〇
 電話二二四六〇三

翼元公派
金震會
 安東市 泰華洞

람이 없었노라. 十五과 자손 들이 국내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 번창하였다. 이조에 이 르러서도 이름높은 분들과 큰 벼슬들을 하신 분들이 계속이 어 일어났으며 여러 갈래로 분류하고 수만 가지로 번어나 서 번창하였으니 충렬공 부군 의 음덕에 돌아가지 않는 것 이 없도다. 평소 충렬공께서 적인 적덕하신 경사와 박씨 할머니께서 어질고 온순하시 덕이 아니고 이 무엇이겠는가 충렬공의 묘는 안동축송동 능 동에 있는데 근 七백 여년을 수호하여 오며 꿍꿍없이 향사 를 받들어왔으나 냉평국 대부 인의 묘는 실전한게가 이미 오래 이며 그 후 실단을 하고 향사 를 하여 비록 작은 정성을 표 하여 왔으나 단묘에 비갈이 없어 우리 선조의 후손된 자 로서 누가 종주스럽고 탄식하 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타인들이 보더라도 어 제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리하 여 연전에 행사때에 작 파 여 정성과 힘을 합하여 단비를 세우게 되매 여러 종인들이 불초 나에게 비문을 지으라고 하기에 감히 사양치 못하고 문사는 되지 않았으나 할수 없 이 외람함을 무릅쓰고 삼가 우(右)와 같이 찬하노라, 소 왕탄강후(공부자) 四十二병오 칠월 二十四대손 중회 근찬 지나간 병오년 가을에 작파 에서 분담하여 위선사업을 할 때에 군사공과 분담으로 전립 한 할머니 단비에 하자가 몇 군데 있어 우리 후손된 자로 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디지 못하여 오다가 이제 겨우 다 시 개조하여 삼가 세우노라, 구 단비는 단묘속에 묻었노라 二十四대손(안점사공 二十대손) 윤회 근서 서기 一九八五年 을축 七月 일 안동김씨대종회중앙본부 근수

贊助金

拾萬圓 翼元公派 泰亨 (太平路)
 貳萬圓 榮州宗親會 榮德 (大邱)
 貳萬圓 翼元公派 安東郡 周溪門中 海演 (鳥致院)
 壹萬圓 按廉使公派 常元 (仁川)
 壹萬圓 副使公派 震會 (安東)
 壹萬圓 翼元公派 英植 (安東)
 壹萬圓 翼元公派 明五 (新月洞)
 壹萬圓 都評議公派 浩山 (義城)
 壹萬圓 都評議公派 熙元 (忘憂洞)
 壹萬圓 都評議公派 石秀 (大邱)
 壹萬圓 提學公派 相協 (東小門洞)
 壹萬圓 翼元公派 東震 (安東)

안동김씨대종회중앙본부 근수

獎學基金寄託者

拾萬圓 翼元公派 以會 (九老六洞)
 四萬圓 郡事公派 在根 (扶安)

傳 說



강릉시(江陵市)에서 자동차로 약 2km의 거리에 위치한 곳에 교동(校洞)의 성부(城守) 마을이 있다.

대를 살아온 세가지(世居地) 이나, 벼슬에는 뜻이 없고, 학문에 힘을 쓰니, 대대로 도덕문장(道德文章)의 석학(碩學)이 끊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상산재(商山峙)의 대로변(大路邊)에 정결히 단장된 한 정려각(旌閭閣)이 있으니, 안동(安東)의 삼세(三孝)인 烈之(烈)라는 진현관(懸板)이 지나가는 길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 한 집에서 三代에 걸쳐 호자(孝子)가 三명, 열녀(烈女)가 二명이나 있다는, 세상에 길이 남기기 위해 나라에서 명(命)해 지은 정려각이다.

공이 어린 시절부터 호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공양하는 정성과 조석의 문안을 게을리 않으니 이웃의 사람들이 출천지효라고 칭찬하였다.

지성이면 감천(至誠感天)이란 말은 분명히 허튼 말이 아니었다.

평생을 하루같이 효도의 길로만 일관(一貫)해 온 공은 공도 이미 三십의 고개를 넘어섰을 때, 아버지 통덕랑공(通德郎公)이 병석에 눕더니, 한 달이 지나면서 병환은 더욱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

때는 마침 엄동설한(嚴冬雪寒)이라, 계천(溪川)이나 연담(淵潭)까지 공평일이 불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병석에 누운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昏迷)한 상태로 「봉어의 회가 먹고 싶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공은 「봉어를 잡아 오겠다」는 마음으로 냇가로 나갔으나, 어디를 가도 두꺼운 얼음장만 깔렸을 뿐,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봉어를 잡을 도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바람은 사납게 불어 그칠 줄 모르고 건너산의 평들은 눈 속에서 보금자리를 찾으려고, 처량히 울면서 저산으로 날아가니 그날 해도 얼마 남

지는 「상당한 헛소리 생각 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때는 아직 이른 봄이라, 산에는 아직 눈이 깔려 있고, 초목의 맹동(萌動)은 때가 멀었는데, 그래도 공은 산으로 가서 사랑을 해매던 중, 마침 양지바른 곳에 가니 고사리가 돋아 있어, 이를 꺾어다가 입에 맞게 해드렸더니 그 후로 차료가 있어 마침내 완쾌하게 되었다.

후일에 양친의 상고를 당하자, 죽을만 마시고 여막(廬幕)을 떠나지 않으면서 예절(禮節)에 어긋남이 없게 하였다.

공이 회갑(回甲)을 당하자 자손들이 좋은 새옷과 좋은 음식을 차려서 대접코자 하자 공은 절연히 물리치면서, 「하루라도 정복자(程夫子)께서 「마땅히 비통한 때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계교가 있었고, 또 부모의 생전에는 가난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좋은 음식과 의복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입에 대고 몸에 걸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이 임종(臨終)에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자손들을 불러 경계의 말을 유서(遺書)로 남기고 누워 엄연(奄然)히 하세(下世)하였다.

부인 강릉김씨는 침주(金樞)시성(始聲)의 따님이라, 공의 병석(病席)에서 七주야를 울면서 하늘에 기도하고, 손가락을 끊어서 피를 드리우니, 나중에 열 손가락(十指)을 다 끊어서 五개월이나 생명을 연장시켰고, 상고를 당한 후로 二십여년 동안이나 머리를 빗지 않고, 얼굴에 치장을 하지 아니 하면서 집안과 배치를 맡고 지냈다.

얼음 속에서 봉어를 얻은 공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공은 봉어를 두 손으로 높이 받들고, 하늘에 감사를 드린 후에, 집으로 와서 병석에 누운 아버지에게 또 한번 효도를 하게 되어, 소문은 이웃을 통해서 온 고을이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병환은 그 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쾌유(快癒)하지 못한 양, 새 봄을 맞이 하였는데, 병석의 아버

자의 휘는 석진(錫晉)이며, 자(字)는 진보(進甫)로서 숙종정해(肅宗丁亥) 1707(一七〇七)에 출생하니, 괴현(槐軒)공의 장자(長子)이다.

공이 일찍이 효제(孝悌)의 가문에서 자라나서 정훈(庭訓)을 익혀서 효도의 정성이 우두(尤篤)하였는데, 아버지 괴현(槐軒)공의 병중에 인삼(人蔘)과 부영(茯苓)을 구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걱정에 잠겨 있었다. 백방으로 사람을 보내고 자신도 나가서 몇날을 수소문했으나 구할 길이 없어 자탄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행상(行商)하는 노인 하나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늙은 노이 간밤에, 건너 주막(酒幕)에서 자고 있었는데, 꿈에 어떤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저 동리, 김씨 백에서 인삼과 부영을 금하구 하고 있으니, 너는 빨리 가서 전하라」하면서 짐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에 이제 바로 왔읍니다.」 하였다.

이에 취은 공은 기뻐하여, 그 늙은이에게 약값을 후이 주고 대접을 잘해서 보내고 약을 써서 크게 효험을 보았는데, 세상에서는 효성이 하늘의 감응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 모부인(母夫人) 김씨가 미망(未亡)후로 二십여년간이나 병석에서 계시자, 열을 빼내지 아니하고, 밤이면 눈을 붙이지 아니 하였다. 의원(醫員)을 만나면 언제나 공손히 절을 하고 후하게 대접하였고 때때로 상분(嘗糞)을 죽을 사람 대변에서는 냄새가 없다 하여 「孝子는 父母大便의 맛을 보면서 病勢를 짐작하였으므로 하여 병의 증세를 시험하였다.」

전·후의 친상(親喪)에 죽물만 마시고, 고기를 먹지 않았고, 삼상(三喪)을 마친 후로는 사당의 참배와 성묘(省墓)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공의 二취 부인 최씨 또한, 그 남편의 지극한 행실을 본받고, 그 시어머니의 열행(烈行)을

받아 이행(履行)하였다. 무인(戊寅)년 가을부터 취은 공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매일같이 하늘에 기도하였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두리위서 호흡(呼吸)을 통하게 하였더니, 그날 밤꿈에 한 신인(神人)이 와서 「너의 정성을 하늘이 감응하시어 네 지아비에게 몇달 동안의 생명을 더 연장시킨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리 하였다.

△三世 省齋公

성재 공의 휘는 구(丘)요, 자(字)는 경이(景尼)니 취은 공의 장자로서 영조 정미(英祖丁未) 1727(一七二七)에 출생하였다.

공이 또한 어려서부터 효우의 행실(孝友之行)이 우두하였고 十六세에 모부인(母夫人) 채씨(蔡氏)의 상(喪)을 당하자, 三년 동안 시묘(侍墓)를 하면서 죽물만 마시니, 취은 「상중(喪中)에 죽만 먹는 것은 이미 우리 집 가규(家規)로 되었구나」라고 하였다.

후일에 부친상(外喪)을 당해서는 三년 동안 죽만 먹었고, 탈상(脫喪)후에도, 쌀밥을 먹지 않았고, 비단옷을 입지 않고 두견(孝巾)과 상복을 입고 다시 六년을 지내면서 말하기를 「아직도 완전하게 상사를 치루지 못하여 정회(情懷)를 다 펴지 못하였으니 바로 천지시간에서 큰 죄인이다.」고 하였다.

공이 三년 동안에 삼차(三次)나 위독한 병환으로 고생을 하는데, 꿈에 네 노인(四老)이 왔는데, 그의 관(衣冠)이 아주 훌륭하였고 그분들은 공의 조부(先王考)와 더불어 함께 모두 왔다면서 슬하(膝下)에 불러놓고 하는 말이 「우리 한데, 좋은 양약(良藥)이 있는데 가히 너의 생명을 전저 줄 수 있다」하고 처음에는 잉어(鯉魚)를 먹고, 두번째는 쇠고기의 포(脯)를 먹고, 세

번째로 전복(鮑魚)을 먹으니, 별안간에 땅이 울려서 옷이 젖드니, 바로 나았는데, 이러 한 일이 무릇 삼차(三次)나 있었다.

공은 만년(晩年)에 「효(孝)」와 「제(節)」의 두 글자로서 후진(後進)을 가르치는 기본(基本)을 삼아 인리(隣里)를 교화(教化)시켰다.

조정(朝廷)에서는 순조(純祖) 7년 정묘(丁卯) 1807(一八〇七)에 삼세 삼효이열(三世三孝)의 증여각(旌閭閣)을 아울러 짓도록 하명(下命) 하였

(元榮記)

각종 솜 혼수이불 마춤 · 판매

大同綿業社

金榮德

(翼元公派)

大邱市 南區 鳳德洞 960 (鳳德市場 內)

電話 : 66 - 5306 自 763 - 7968

安東金氏 榮州市 宗親會

代表

金容文 金永壽

誌世先情衷國憂

承在派公成司大

(前號에서 계속)

이 瀟將公이란 劉復亨을 일컫는다. 그가 싸움에서負傷하였음을 立證하여 주고 있다. 戰勢가 不利한 日軍은 博多에서 箱崎로 退却하였으니 進攻軍은 이제 目標地 大宰府로 轉하여 直前에 있었으나 劉復亨의 負傷으로 左軍指揮가 난처하게 되었다. 都元帥忻都는, 右軍 洪茶丘와 麗軍 都督使를 命했다. 麗史와 蒙古襲來에 보면, 金方慶都督使는 이 會議에서 劉復亨의 勢力이 多少 뒤지는 限이 있다. 라도 尙장 趙들어가야 한다는 最強論을 主張하고 있다. 金都督使曰, 우리 兵은 少數이 나 이미 敵境에 들어와 있다. 戰場에 있어서는 孟明이 배를 태워 불사르고, 淮陰의 水를 등에 업는다'라 하였으니, 다 시한번 決戰할 것을 主張하는 바다.'라 하였다. 焚舟와 背水의 故事를 引用하여 主張하였으니, 即 孟明은 春秋時代 秦나라 將軍이라, 臨戰하면 大敵을 무서워 말 것이며, 軍士가 江을 건넜으면 타고 온 배를 불살라 버리고 退路를 끊어 決死의 氣로 敵을 쳐부수었고, 漢나라 建國功臣 韓信은 后日 淮陰侯에 爵封된바 있는 데, 그는 어느 交戰인가에서 江을 背後하여 陣을 쳤다는 背水陣의 故事가 있다. 麗史는 金都督使의 勇猛性을 記錄한 것에 不過하나, 이 時點에서 金都督使가 왜 最強主戰論을 썼는가에 對하여는 깊이 注視할 必要性을 갖게 한다. 他意에 依하여 參戰하였다면 適當히 싸우는 체하고 回軍하면 될 것을 어찌하여 主戰論을 썼을까 하는 點이다. 筆者는 金都督使의 主戰論의 背景을 다음과 같이 헤아려 본다. 金都督使는 出戰에 앞서 果次의 入元으로 忽必烈이란 元帝의 氣質과 野慾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 싸우지도 않고 回軍한다 하면, 틀림없는 第二次 東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第一次 東征을 成功시키든가 아니면, 全滅되던가의 結果를 내어야 後患이 없으리라 보았던 것이다. 却說하고 이 作戰會議는 忻都가 孫子兵法을 引用하여, '小敵의 堅은 大敵의 擒이라 했다. 疲勞한 軍士를 매질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敵은 日益 增強하여 갈 것이다. 이에 맞서 좋은 戰法이라 할 수 없으니, 撤軍을 命한다.'라 하여 會議를 마쳤다. 이리 하여 東征軍은 모두 배에 올라 탔는데 바로 그날 밤 暴風雨가 玄海灘을 蹂躪한 것이다. 大船團은 颶風雨에 翻弄되어 하룻밤 사이에 無殘의 모습으로 化하고 말았다. 高麗軍 左軍使 金(尙)錦山(金氏始祖)도 이때 물에 빠져 죽었다. 一八二一年 第二次 東征은 五月三日에 出征하니, 六月十五日에 東路軍 五萬七千名과 范文虎가 이끄는 南宋軍 十萬名이 壹岐島에서 合流하기로 되어 있었다. 五月二十一日에 對馬를 치고 六月六日 東路軍(蒙漢麗軍)은 博多灣頭에 모음을 나타내었다. 이때 日本側の 防禦는 北條宗政 安達盛 宗島久經 등이 博多灣의 防禦를 굳히고 있었다. 元의 本軍(蒙漢人部隊)은 志賀島와 能古島에 닿을 내리고 高麗軍은 宗像(우나가타)에다 닿을 내리었다. 六月六일부터 上陸 作戰에 들어간 高麗軍은 都元帥 金方慶 左右副都統인 朴球와 金周鼎 또한 上陸하여 日軍과 交戰하여 首斬 三百餘級, 이렇 게 하여 志賀島(鹿島)까지 노치 마(血戰)의 開始되나 물이 없고 食糧이 없으니 小島에 疾病이 發生하여 高麗軍은 三千餘人이나 犧牲者가 나왔다. 六月二十四日에서 江南軍 十萬이 到着하였다는 消息이 傳하여지고 東路軍은 當初의 會合地인 壹岐로 向하였는데, 江南軍의 到着이 늦어지기에 忻都와 洪茶丘는 一端 回軍할 것

을 議論하였다. 金都元帥는 다시 主張하니, '아직도 軍糧은 三個月分中 一個月分이 남아 있다. 江南軍의 到着을 기다리어 한관 勝負를 벌인다면 平島夷(日本)를 滅亡시키리라.' 하였다. 이것은 麗史의 記錄으로 金都元帥의 勇猛을 讚한 것에 不過하나 積極論을 主張하는 金元帥의 속셈은 언젠가 回軍후의 高麗에 미치는 影響을 미리 收拾하는 데에 있었음을 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리하여 六月은 가고 七月에 접어들어 江南軍은 平戶島와 西南方의 五島列島에 三千五百艘의 大船團으로 到着하였다. 戰列을 整備하여 七月二十七日에는 博多와 鹿島에 肉迫하니 이로써 七月三十日(陽曆으로 치면 八月三十日) 밤이 되었다. 八幡愚童記에 依하면, '靑龍이 바다에서 머리를 내어 硫黃의 냄새가 虛空을 뿜어 異類異形의 物體들이 눈에 번쩍하였다 무서운 颶風이 來襲하였다'는 表現이다. 이리하여 十餘萬의 大軍과 四十餘艘의 大船團은 싸우지도 못한 채 거의가 水葬되니 麗史記錄에 보면 元의 犧牲者 無慮 十萬 麗軍 七千餘人 그 中 東路軍은 九千九百六十名 梢工水手 一萬七千二百九名 中生還者 一萬九千三百九十七名이라 했다.

本詩는 仄起法 原則을 絕對的으로 固守하고 있다. 押韻은 靑靑行 三韻인바 押韻上의 起韻을 破格하고, 通韻 庚靑系 中 靑行은 庚靑系인데 反하여 靑은 靑靑系에서 빌려다 쓰고 있다. 作詩法上 押韻을 他系 通韻에서 選取하지 말라는 法則은 없으나 通常 押韻은 平聲 中에서 또한 同系列에서 取할 수 있는 原則으로 하며, 七言絶句의 三韻은 通常의 三韻이나, 破格하여 三韻으로 作詩한 名詩도 있으니 靑靑系 破格하였다 하여 嚴批가 있다고는 指할 수 없다. 參考로 '庚' '靑' 韻系의 漢字를 羅列하여 보면 破格하였다는 것을 바로 알 것이다. 庚靑系 京驚, 明, 名, 聲, 成, 晴, 情, 清, 平, 生, 亨, 行, 彭, 等 이고, 靑靑系 經, 亨, 庭, 溟, 銘, 星, 靑, 靑, 形, 螢, 等 (蒸靑系 省略)인바 同韻系가 아님을 立證할 것이다. 起句 押韻을 正當의 平聲 庚靑系의 靑, 靑, 行을 取하지 않고 이를 破格하여 通韻系의 '靑' 韻을 왜 빌려다 썼는가에 作詩法上 一端 疑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本詩가 唯一하게 傳하여 오고 있는 反面 本詩의 押韻을 보고 次韻한 詩가 傳하여지고 있어 靑靑系 元來 靑靑系 이었음을 立證하여 주고 있다.

本詩는 山水의 水로 起하여 仄起法을 使用하고 있다. 仄起法의 配列 原則은 다음과 같다. (一) 仄聲 押韻 (二) 通韻性 있는 平仄 (三) 押韻 本詩의 配列 起 山水無非靑靑系 承 樓臺亦是少年情 轉 可憐故國遺風在 結 收 拾 絃 歌 慰 我 行 平聲庚靑系

賢明한 后孫들은 많이 訂正하 고 있는 事例도 있음을 보기 生活를 平生 營爲하였지만 그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쯤 檢의 生涯는 可憐한 高麗의 國 詩 問題를 註하여 두는 運에서 元帝의 사위가 되 어 蒙을 尊信하는 可憐한 王 室, 元의 強要속에 이루어지 七〇歲의 高齡老將으로 東征는 高麗民의 犧牲, 橫暴 속에 失敗하는 것 등은 그에게는 切모르고 自我의 功名心만을 觀心이 別로 없는 것일뿐 오 目標로, 元의 忠犬노릇을 하 는 第三의 東征이 있어서 壓迫하여 오는 洪茶丘의 回軍후의 金元帥는 착잡한 心 에는 可憐한 心理의 葛藤속 境이었으나 東征者들의 論功에서, 每事를 收拾하는 政治 行賞이 擧論되어 그 職級의 家의 憂國哀情속에서, 一世 上申에는 血眼이 되었다. 金 英雄을 마치었다. 七百餘年 元帥의 생각과는 달리 參戰論 前의 歷史는 高麗의 敗亡과 功을 들추어 昇進 등을 奏請 李朝王國을 거쳐 君主政治는 하여 오나 東征의 論功은 無 民主政治로 바뀌어 歷史를 보 意味하다는 判斷과 水葬된 軍 是 一八〇度 轉換하였다. 士의 慰魂과 當身의 疲勞等 民族史觀이라는 것과 民族主 이 걸쳐 消極적인 行賞이 되 어 버리니, 公에 對한 不平이 體意識이란 價値尺度로써 三 및 發처럼 쏟아졌다. 이 論功 別抄의 亂을 抗蒙精神이라 하 行賞等의 處理로 不平은 實 는 時代로 遷移하였다. 아저 公이 逝世하였어도 國葬 의 禮를 치르지 못한 채, 私邸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七月二十五일부터, 七와 血緣의 尊貴함을 自覺하고 月二十八일까지 四日 동안, 忠實踐하는 人格陶冶에 目的을 北靑原郡 梧倉面 慕亭里 所在 두고 指導와 勉勵에 置重하는 永慕齋에서 蒼梧會員 家族을 團體로서 他로 하여금 羨望의 相對로 教養講座를 開催하여, 對像이 되고 있다. 先祖의 冥年 業績과 行義忠節 蒼梧會의 會員數는 壹百參 等を 教習시켜 崇祖孝親의 思 拾四戶로서 會長 在晚 氏의 想과 愛親睦族의 精神涵養에 總括하에 副會長에 在寅 潤 至大한 寄輿를 하였다. 會, 監事 賢默, 在麟 氏等 이 蒼梧會는 按廉使公(諱 士廉)의 後孫으로 構成된 組 理事와 總務, 組織, 弘報, 連 織으로서, 解弛된 門規를 絡·涉外, 調整의 六個部署에 바로 잡아, 爲先事業에 率先 理事一名과 參事二名 式이 垂範할 수 있는 子孫의 道理 各各 選定 되었다.



金應河장군묘 聖域化를

鐵原이 낳은 名將, 문화재 지정조차 못받아

李舜臣장군 앞서 忠武公 시호

機動取材部

金純中부장
金明煥 부장
曹圭並 기자

【鐵原】4만여 鐵原 東松原 주민들은 鐵原杏花池9리에 있는 忠武公 金應河장군묘 정미와 신도비를 문화재로 지정, 성역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묘정비보존사업추진위원회

재 고지사 비각들을 짓기 위한 대지 마련을 위해 위원들의 찬조로 묘정비주위의 1천여평을 이미 매입해놓고 있다.

이같은 사업을 성취하면 경우 충무사의 계승과 함께 주민의 정수의를 높이기 되고 문화재로 지정, 관광 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

安後鎭보존사업추진위원회는 10년간 성역화를 위해 묘에 철원, 진천을 했으나 아직껏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강원제 1군이었던 철원군의 군세를 다시 창군한 오직 군민의 정신적지주인 金應河장군묘 정미 성역화로 애환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金장군의 위패는 현재 묘 앞 사당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안치하고 있어 유리의 중심이 되어 1년의 2회 묘 정미 앞에서 祭享만 올리고 있다.

金應河장군묘 朝鮮宣祖 13년(1580)에(음력3월) 鐵原군이 운명할 때에서 태어나 25세 때 무과에 급제, 선전관이 되었고 鐵城지방 牌將 宣傳官 宣川군수를 지냈으며 濟南의 建州衛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원군장으로 출정, 큰 공을 세우고 싸우다 40세에 전사한 사실이 밝혀진 명사이다.

한편 철원군이 金장군묘정비의 문화재 지정 공문을 보내 제출, 지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前國防長官用兩博士逝去



前 國防部長官을 歷任 하신 典書公派 用兩博士께서 去 九月 十三日(陰七月二十九日) 下午 七時三〇分에 享年 七十四歲로 別世.

用兩博士는 일제기 培材高普와 延禧專門學校를 卒業하고, 美國 南加州大學院을 修了後, 歸國하여 教育界에 投身 培材中學과 淑明高女에서 敎鞭生活를 하던 중 解放을 맞이하였다.

一九四六年 부터는 서울市 厚生局長을 始發로, 一九五〇年 五月에 第二代 國會議員에 當選되었고, 一九五五年 十月에는 國防部次官, 다음해 五月에 國防部長官에 就任하였고, 이어서 駐英大使를 歷任하였고, 一九六二年 八月에는 第十七次 UN總會 韓國代表로 參席하였다.

또 用兩 博士께서는 社會事業에서도 國內外的으로 華麗한 業績을 남기셨으니, 大韓反共青年團長을 비롯해서, 韓國文化放送會長, 東洋TV社長, 韓國 보이스 카우트聯盟 總裁, 大韓體育會長, 大韓赤十字社 總裁 등을 두루 歷任하였고, 安東金氏大宗會 創立 當時부터 顧問으로서 大宗會 發展에 寄與한 功勞 또한 至大하였다.

訃告

大宗會 前理事이신 源植 氏께서 宿患으로 去七月四日(陰 五月十七日) 榮豐郡 文殊面 合門里 自宅에서 享年 六十八歲로 別世.

大宗會 理事이며 安東市 宗親會 副會長인 英植 氏大人(諱 洙道)께서 去七月五日(陰 五月十八日) 安東市 大石洞 二二二 自宅에서 享年 七十六歲로 別世.

歲享日程 (괄호안은 음력)

忠烈公諱方慶之墓	十一月二十日 (十月初九日)	慶北·安東郡祿轉面竹松洞陵洞
冷平國大夫人竹州朴氏之壇	十一月二十日 (十月初九日)	慶北·安東郡豐山邑檜谷洞
尚書公諱愼之壇	(三月十六日)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文英公諱恂之墓	十一月十八日 (十月初七日)	京畿·安養市冠陽一洞後山
忠肅公諱承用之壇	(三月十六日)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文肅公諱永暉之壇	十一月十二日 (十月初一日)	忠南·天原郡並川面佳田里桃汀
福昌府院君諱永煦之壇	十一月十六日 (十月初五日)	忠北·清原郡梧倉面慕亭里
評理公諱厚之壇	(三月十六日)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判慈惠院事公諱績之壇	十一月十二日 (十月初一日)	忠南·天原郡並川面佳田里桃汀
領三司事公諱歲之壇	十一月十六日 (十月初五日)	忠北·清原郡梧倉面慕亭里
掌令公諱坎之壇	十一月十四日 (十月初三日)	忠南·燕岐郡全東面美谷里
掌令公諱萇之壇	十一月十二日 (十月初一日)	京畿·始興郡儀旺面浦一里廣谷山
開城尹公諱七霖之壇	陽三月第三日 曜日 陽十月第三日 曜日	京畿·廣州郡草月面池月里
郡事公諱七陽之墓	(三月十六日)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典書公諱成牧之墓	十一月十四日 (十月初三日)	忠南·燕岐郡全東面美谷里
大司成公諱九容之壇	十一月十二日 (十月初一日)	京畿·抱川郡蒼水面可養里
都評議公諱九鼎之墓	十一月十五日 (十月初四日)	慶北·義城郡義城邑業洞杏峴
淑人牙山蔣氏之墓	十一月十七日 (十月初六日)	慶北·義城郡點谷面西邊洞大岱
大護軍公諱儒之墓	(三月十四日)	全南·羅州郡金川面竹村里玉峙
提學公諱益達之壇	十一月十二日 (十月初一日)	忠南·天原郡並川面佳田里桃汀
按廉使公諱士廉之墓	十一月十六日 (十月初五日)	忠北·清原郡梧倉面慕亭里
翼元公諱士衡之墓	十一月二十日 (十月初九日)	京畿·楊平郡楊西面木旺里
書雲觀正公諱綏之壇	十一月十二日 (十月初一日)	京畿·始興郡儀旺面浦一里廣谷山

※ 本記事는 江原日報 一九八五年 七月二十日(土) 字에서 轉載함 ※

(前號에서 계속)
獻官과 執禮 祭物有司가 祭物을 封上하고, 諸執事와 學生이 明倫堂 아래에서 鞠躬하고 祇迎하였다.
二十二日.. 初鷄鳴과 同時에 獻官以下 諸執事가 各位置에 就하여 合享禮를 行하고, 아울러 常享祝文을 읽었다. 이때를 當하니 月星이 明朗하여, 山水의 빛이 더 좋고, 燈燭이 輝煌하니 廟貌가 維新되어 陟降之靈은 다시 一體之祀로 敬享하시고, 駿奔之士는 다시 前日의 儀式을 보게 되었으니 神道의 理致와 人間의 心情에 는 이제 遺憾이 없으니 天理의 屈伸과 吾道의 顯晦가 또 한 매가 있어 그러함이다.
行禮를 마치고 獻官以下 諸執事가 차례로 退出하였다. 아침이 밝아오자, 明倫堂에서 諸執事가 飲福禮를 行할 제, 諸執事가 執酌하고 서로 祝賀하는 말이, 日吉良辰하여 大事를 利成하니, 이는 大抵 駿奔之列에 就한 분이, 모두 齊戒謹飭하여 하나도 失禮한 분이 없었 으니 斯文의 慶事요, 多幸한 일이 이에 더할 바 있으리요!
하루이 때 座上的의 여러분도 "그렇다" 하기에 술을 三巡杯 식 나누고 罷坐하였다. 朝食을 마치고, 遠近에서 온 會員이 모두 흠어져 돌아가고 任員과 各有司 二十一人은 降雨로 말미암아 挽留하기에 止宿하였다. 모든 下人들도 모두 물러가는데 술 한 동이와 쇠고기 몇斤을 주어서 慰勞하였다.
二十三日.. 任員과 모든 有司가 用下文記를 讀아 마감하니 無事 需用穀이 正租 二十餘斗斛이었다. 모든 下人을 불러서 各自 집으로 보냈다. 罷會할 때, 祭器都監으로 金啓鍊과 金相默을 望出하여 祭器改造의 일을 議論하였다. 道淵書院에서 答書가 왔는데, 都司 幼學 李柱와 齋有司 李奎顯 任泰源이 扶助金 一兩을 致送해 주었고, 魯林書院에서 首僕을 시켜 私通으로 扶助五十文을 보내왔다. 丙申九月十七日 金鶴陰宅에서 보낸 扶助金 一兩이 늦게 到着하였다.
壬子年 奉安時에도 반드시 日記가 있었을 터인데, 이제 傳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된 일일까?
생각하건대, 알 수는 없으나 當時에 미처 修錄하지 못하여서, 옛일이라 그대로 廢闕된 것인지? 혹은 남에게 빌려주고 다시 찾지 아니한 것인지? 可惜하게도 그 文獻의 微蹟이 없고 遺蹟에 빠짐이 많으니, 매우 恨歎스러우며, 또 생각하건대, 그 當時에 各所의 扶助도 있었을 터인데,

奎顯 任泰源이 扶助金 一兩을 致送해 주었고, 魯林書院에서 首僕을 시켜 私通으로 扶助五十文을 보내왔다. 丙申九月十七日 金鶴陰宅에서 보낸 扶助金 一兩이 늦게 到着하였다.
壬子年 奉安時에도 반드시 日記가 있었을 터인데, 이제 傳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된 일일까?
생각하건대, 알 수는 없으나 當時에 미처 修錄하지 못하여서, 옛일이라 그대로 廢闕된 것인지? 혹은 남에게 빌려주고 다시 찾지 아니한 것인지? 可惜하게도 그 文獻의 微蹟이 없고 遺蹟에 빠짐이 많으니, 매우 恨歎스러우며, 또 생각하건대, 그 當時에 各所의 扶助도 있었을 터인데,

勿溪書院日記(3)

單子로 錢文 一兩을 보내다.
榮川 梧麓의 金濟州宅에서 單子로 錢文三兩·香四塊·黃燭四雙·黃筆二柄·眞玄墨二笏을 보내다.
忠州 周柳村에 사는 楊若齋 先生의 十代孫 金振玉이 單子로 錢文一兩을 보내다.
忠州 甘未谷에 사는 楊若齋 先生의 十一代孫인 喪人 金始禎이 單子로 錢文二兩을 보내다.
忠州 福城洞에 사는 楊若齋 先生 十一代孫 金始大가 單子로 錢文一兩을 보내다.
忠州 甘未谷, 栗洞面, 高尺里에 사는 楊若齋 先生 十代孫 金井瑞, 金箕瑞 등이 單子로 錢文三兩을 보내다.
庚子年 協院以後로 부터, 丁丑과 庚戌年까지의 事蹟은 이미 先輩所撰의 勿溪誌가 있고, 復享時 日用行事의 事蹟 또한 右와 같이 昭詳히 記述되었으나, 但 祭告之辭와 儀節之文은 敢히 日錄과 같이 混入할 수도 없었고 壬子年과 己丑年의 書籍도 또한 紛失되어 記載된 곳이 없었으므로, 이를 收拾해서 一通을 만들어서 後日의 君子들이 續誌를 纂修할 때 資料로 採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자 하노라.
壬子 事蹟
忠烈公 鶴沙 兩先生 告由文 李訥隱 光庭 撰
伏以 楊若齋 處白堂 學文之正 行義之高 儀式一時 風聞百世 允宜 俎豆之享 合有 必芬之祠 而 綱儀未遑 公議久鬱 茲者 一道士林 以本院 是 二先生 妥靈之所 合議 並享於此 蓋趾美 而 光益顯 原本 而道並隆 祖以 孫尊 孫以祖遜 人情久情 神理 則寧 敢於 將事之時 庸伸 虔告 (譯) 앞드려 생각하오니, 楊若齋와 處白堂은 學文이 바르고, 行義가 높으니, 一時 시고, 行義가 높으니, 一時에 模範이 되어, 名聲은 百世까지 傳할 것이니, 俎豆之享이 마땅하옴고 莊嚴한 祠堂이 있어, 肅한 일인데, 빛나는 儀式을 갖추지 못해서, 公議가 오랫동안 鬱寂하다니, 이제 一道의 士林들이 本院에 兩先生의 尊靈을 奉安할 것을 合議함으로서, 이곳에 並享하게 되니, 대개 始作이 아름답다면 더욱 빛나는 法이요, 原來 根源이 바르면, 따라서 道德도 높아지나니, 祖上은 子孫으로 因해서 尊敬을 받게 되고, 子孫은 祖上으로 因해서 恭遜함을 다할 것임이다. 人情이 和合하면 神理도 寧靖하실 줄 믿고, 敢히 일을 始作하면서 鞠躬하여 敬虔하게 告하나다.

素山 金氏門中 會奠有司가 扶助金 一兩을 보내다.
白紙 二束을 보내다.
太師廟에서 下人을 通해 錢文 一兩과
白紙 二束을 보내오다.
醴泉 馬坪에 사는 太元昌 太應夏 太應井 등이 單子로 錢文一兩과 白紙一束을 보내다.
素山 金氏門中 會奠有司가 扶助金 一兩을 보내다.
白紙 二束을 보내다.
太師廟에서 下人을 通해 錢文 一兩과
白紙 二束을 보내오다.
醴泉 馬坪에 사는 太元昌 太應夏 太應井 등이 單子로 錢文一兩과 白紙一束을 보내다.

乙卯年 閏四月十九日 五美洞의 齋有司 金瑞泰·金瑞國이 單子로 알리기를, 本院은 物力이 本來 넉넉치 못한 대다가 兩位의 追配後로 더욱 零星해지며, 우리 先祖 또한 並享之列에 계시니, 子孫된 道理로 마땅히 若干의 位士나, 守僕을 마련해서, 春秋享禮時에 萬分之一이라도 도음을 드리려 하였으나, 財力의 不足으로 이제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한결같이 心中에 悚懼할 뿐이다. 이제 온 門中이 모두 會議하고 齋舍의 位番 一匹과 奴婢 三口를 別錄과 같이 奉納코져 永久의 文書를 作成하여 後日의 憑徵을 다짐합니다.
執筆에 新榜生員 金瑞圖요, 土地의 所在地는 豊北 龍興員에 遂字三番 十六卜 五斗落과 府內에 있는 癸玉의 一所生婢 丁春의 年丁丑生과 同婢의 一所生婢 太占 年十一 乙巳生, 二所生婢 太丁 年一歲 乙卯生
楊若齋 先生 奉安文 李息山 萬敷 撰
上洛宗賢 牧隱衣鉢 若圃若陶 乃硬乃切 代燻而遠 觀遊乎質 藝苑掉鞅 聲價夙蔚 壁席受簡 前無軒輊 成均升席 彬郁峨述 陽若勿貳 友于少七 守降不虞 賦鵬匪孽 遊矣西土 布帆影滅 面瘦江山 魂消風月 江門之報 千古盡絕 義重致身 命受獲物 形勝懷壯 華夏名澈 任席兒女 孰辨得失 繁茲黨社 負白帶勿 事奉祀典 揭虞忠烈 型範公祠 適儀寧缺 邦謀既允 牲齊克潔 洋洋應永 庶歆芬苾
(譯) 上洛金氏의 主宗이요, 牧隱先生 第子로서 鄭圃隱과 李陶隱으로 더불어 學問과 德行을 切磋琢磨하여, 佛敎를 멀리 하고 儒敎를 尊崇하여 藝苑에 빛을 삼으니, 名聲이 夙達하고, 弘文館에서 文書를 管掌하니 그 앞에는 더 높은 學者가 없었으며, 成均館으로 位次가 오르니 文章의 彬彬郁郁함은 螢雪의 功이요, 개미의 金塔이로다. 恐懼謹慎하니 잘 못이 없고, 七人學友여, 한 사람이 빠졌도다. 하늘이 災殃을 내리고 도음이 없었는가? 運數가 丕塞함인가? 멀고 먼 西土에서 一雙의 帆船은 形蹟 없이 사라지고 顏色은 江山도 야위었으니, 魂魄은 風月속에 사라졌는지? 江門의 슬픈 消息은 千古忠臣의 빛이 멀어지고, 義를 위해 목숨 바치니, 肉體는 烏鵲의 밤이 되었도다 威容이 勝嚴하고 雄懷가 壯快하사 名聲이 中國天地를 울리니 閨中의 兒女子가 어찌 그 得失을 알리요? 이에 儒林의 모임에 즈음하여, 負白의 禮服을 갖추어, 笏을 잡고 祭典을 舉行하여 忠烈을 追慕하고 公의 模範을 뒤받았으니, 어찌 當然한 儀式을 갖추지 않으리요? 朝廷에서 이미 儀禮가 允許되고 牲幣의 祭需가 克히 簡潔하오나, 멀리 오래도록 香火를 받음으로써,
常享祝文 丕承前烈 早就有道 致身受命 令名永保(不用)
(譯) 크게 先烈의 精神을 繼承하사, 일찌기 儒道를 담으시고, 몸을 던져 목숨 바치셨으니, 아름답다운 그 이름 길이 保全하리이다.
又 功存倡學 義炳死國 華夏知名 有光前烈
(譯) 功이 높으니 儒學을 倡導하심이요, 나라 위해 목숨 바치시니, 義를 빛내이로다. 中國당까지 그 이름 알리었으니, 前烈에 對한 光榮 더욱 더하시리다.
(다음 호에 계속)

庚子年 協院以後로 부터, 丁丑과 庚戌年까지의 事蹟은 이미 先輩所撰의 勿溪誌가 있고, 復享時 日用行事의 事蹟 또한 右와 같이 昭詳히 記述되었으나, 但 祭告之辭와 儀節之文은 敢히 日錄과 같이 混入할 수도 없었고 壬子年과 己丑年의 書籍도 또한 紛失되어 記載된 곳이 없었으므로, 이를 收拾해서 一通을 만들어서 後日의 君子들이 續誌를 纂修할 때 資料로 採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자 하노라.
壬子 事蹟
忠烈公 鶴沙 兩先生 告由文 李訥隱 光庭 撰
伏以 楊若齋 處白堂 學文之正 行義之高 儀式一時 風聞百世 允宜 俎豆之享 合有 必芬之祠 而 綱儀未遑 公議久鬱 茲者 一道士林 以本院 是 二先生 妥靈之所 合議 並享於此 蓋趾美 而 光益顯 原本 而道並隆 祖以 孫尊 孫以祖遜 人情久情 神理 則寧 敢於 將事之時 庸伸 虔告 (譯) 앞드려 생각하오니, 楊若齋와 處白堂은 學文이 바르고, 行義가 높으니, 一時 시고, 行義가 높으니, 一時에 模範이 되어, 名聲은 百世까지 傳할 것이니, 俎豆之享이 마땅하옴고 莊嚴한 祠堂이 있어, 肅한 일인데, 빛나는 儀式을 갖추지 못해서, 公議가 오랫동안 鬱寂하다니, 이제 一道의 士林들이 本院에 兩先生의 尊靈을 奉安할 것을 合議함으로서, 이곳에 並享하게 되니, 대개 始作이 아름답다면 더욱 빛나는 法이요, 原來 根源이 바르면, 따라서 道德도 높아지나니, 祖上은 子孫으로 因해서 尊敬을 받게 되고, 子孫은 祖上으로 因해서 恭遜함을 다할 것임이다. 人情이 和合하면 神理도 寧靖하실 줄 믿고, 敢히 일을 始作하면서 鞠躬하여 敬虔하게 告하나다.

庚子年 協院以後로 부터, 丁丑과 庚戌年까지의 事蹟은 이미 先輩所撰의 勿溪誌가 있고, 復享時 日用行事의 事蹟 또한 右와 같이 昭詳히 記述되었으나, 但 祭告之辭와 儀節之文은 敢히 日錄과 같이 混入할 수도 없었고 壬子年과 己丑年의 書籍도 또한 紛失되어 記載된 곳이 없었으므로, 이를 收拾해서 一通을 만들어서 後日의 君子들이 續誌를 纂修할 때 資料로 採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자 하노라.
壬子 事蹟
忠烈公 鶴沙 兩先生 告由文 李訥隱 光庭 撰
伏以 楊若齋 處白堂 學文之正 行義之高 儀式一時 風聞百世 允宜 俎豆之享 合有 必芬之祠 而 綱儀未遑 公議久鬱 茲者 一道士林 以本院 是 二先生 妥靈之所 合議 並享於此 蓋趾美 而 光益顯 原本 而道並隆 祖以 孫尊 孫以祖遜 人情久情 神理 則寧 敢於 將事之時 庸伸 虔告 (譯) 앞드려 생각하오니, 楊若齋와 處白堂은 學文이 바르고, 行義가 높으니, 一時 시고, 行義가 높으니, 一時에 模範이 되어, 名聲은 百世까지 傳할 것이니, 俎豆之享이 마땅하옴고 莊嚴한 祠堂이 있어, 肅한 일인데, 빛나는 儀式을 갖추지 못해서, 公議가 오랫동안 鬱寂하다니, 이제 一道의 士林들이 本院에 兩先生의 尊靈을 奉安할 것을 合議함으로서, 이곳에 並享하게 되니, 대개 始作이 아름답다면 더욱 빛나는 法이요, 原來 根源이 바르면, 따라서 道德도 높아지나니, 祖上은 子孫으로 因해서 尊敬을 받게 되고, 子孫은 祖上으로 因해서 恭遜함을 다할 것임이다. 人情이 和合하면 神理도 寧靖하실 줄 믿고, 敢히 일을 始作하면서 鞠躬하여 敬虔하게 告하나다.



長問 副顧 會會 宗宗 大大 前現 辯護士 金泰亨 派 (翼元公) 事務所: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2街 361 (근원빌딩 302號) 電話: 755-4866 自宅 562-1613
성호洋服店 代表 金石秀 (都評議公派) 大邱市南區大明洞三街二三一〇의二〇 電話: 六七七八七七四
社團法人韓國養苗協會 忠清南道支部 支部長 金海演 (按廉使公派) 大田市 中區 宣化一洞 二二八 電話: 二五三一八七九四

崇義殿秋季天祭參班記

十月三日開天節날 아침이

다. 地下鐵便으로 龍山驛에
到着한 때가, 七時 三十分...

넓은 驛前廣場에는 公休日
의 탓인지? 閑散한 雲圍氣로

周邊의 店舖와 빌딩의 屋上에
서 나무기는 太極旗가 開天節

을 慶祝하는 象徴이 되고 있
었다.

廣場의 中間位置인 道路邊
에 말끔히 正裝한 二十余名의

老紳士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가운데서 麗朝五百年史編纂委

員會 常務理事 金教振氏를
發見하고 握手로 반겼다. 그

밖의 여러분은 모두가, 初面
의 人士群, 教振氏의 紹介로

人事를 交換하는 사이에 五十
餘名이 集合했는데, 開城王氏

門中과 配享功臣 十六賢의 後
孫들이었다.

八時 十分前에 觀光巴士한
타가 到着되어 모두 乘車하였

으나, 座席이 不足해서 十二
名은 立席으로 三時間이나 걸

린다는 長距離 旅行을 堪耐한
수 밖에 없는 形便이었다.

龍山驛前을 出發한 버스는
漢江路를 거쳐서 江邊道路로

進入, 永東橋에서 北으로 向
했다. 道峰區를 벗어나서 議

政府에서 東豆川까지는 廣潤
한 논밭에 버이삭이 豊年

을 期約하듯 남실거리고, 밭
의 菜蔬들도 제법 포릇포릇하

다.
東豆川에서 北으로 約七

八km 地點에서 左側으로 廻轉
하니 어제부터 非舗裝 道路로

접어들어 덜컥거리리는 自然
의 心醉는 農村의 氣分을 滿

喚하게 한다.
한탄江을 건너니 이제부터는

三八線 以北으로 六·二五에
收復한 地域이다. 이곳 哨所

登錄證을 保管시켰다.

車는 다시 出發해서 約 十
余分만에 全谷에 이르렀다. 이

全谷의 街路에는 邑昇格을 自
祝하는 프랑카드가 가을바람

을 받아 자랑스럽게 나뭇가지
에 있었다.

全谷에서 現地까지는 아직
十二·三km의 距離... 얼마

안가서 車는 左側으로 鉅어들
어 달리기 約 十分, 여기가 麻

田郡의 옛 客舍가 있는 곳
이라 하나 지금은 不過 十餘戶

가 남아 있는 荒茫한 곳이었
다. 여기서 道路는 좁고 山비

탈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고,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두

고 運轉技士는 무척 애를 먹
는 듯 했는데, 山 마루턱을

바로 내려서니 紅箭門(홍살문)
이 보였다. 모두가 차레로 下

庫하니 바로 京畿道 漣川郡
嶺山面 아미리로서 三·四戶

밖에 살지 않는 작은 部落이
었다.

紅箭門을 지나면 오솔길...
森林이 울창한, 이 길을 올라

가 約 二百M, 高麗 太祖大
王을 爲始해서 顯宗, 文宗, 元

宗의 四大王의 位牌를 모신
崇義殿의 雄壯한 殿閣이 나타

난다.
齋舍에 들어서서 金教振氏의

紹介로 여러분과 서로 人事를
나누니, 開城王氏宗中의 분

과 裴氏, 李氏, 洪氏, 尹氏
鄭氏等 陪臣의 後孫들이고

漣川 儒林에서도 多數 參席하
고 있었다.

人事를 마치고 正殿에 들러
位牌를 奉審하니 位次는 北壁

正面에 太祖神聖皇帝, 西壁
左側에 顯宗元文大王, 右側에

文宗仁孝大王을 그리고 東壁
에 元宗順孝大王을 奉安하였

고, 廟庭 東便에 位置한 陪臣
廳에는 四位同床으로 四床에

十六功臣을 次列로 奉安하였

는데, 忠烈公府君의 位次는
第十二位로, 第三次床에서 七

百年前 先祖의 位牌를 奉審하
게 되니 그 無量한 感懷는 可

히 表顯할 수 없었는데 陪臣
廳의 位次는 다음과 같았다.

太師開國武恭公

太師開國忠烈公

太師開國忠節公

太師開國武烈公

太師內史令章威公

太師門下侍中仁憲公

守太保門下侍中文肅公

門下侍中文烈公

門下侍中威烈公

門下平章文正公

僉議令忠烈公

中書平章政事文成公

樞密院副使

政堂文學

門下侍中文忠公

鄭夢周

金富軾

金就礪

趙冲

金方慶

奉審을 마치고 나와서 三門

밖을 나서니 天下의 絶景이
눈앞에 展開되었다. 三門 앞

에는 十層의 石臺階段 밑에
蒼然한 두 거목의 槐木이 年

輪을 모르는 채, 一千前 哀患
의 歴史를 말하는 듯 하고, 自

然히 자란 多樣한 植物에 감
쌍인 丹崖絶壁 밑으로 臨津江

의 清流가 소리없이 흐르고
있었다.

麻田郡誌에 依하면 이곳은
本來 仰巖寺址로서 高麗太祖

께서 일찌기 泰封國 弓裔의
臣下로서 松都(開城)와 鐵原

을 往來할 때, 그 中間地點인
仰巖寺에 자주 들곤 하였는데

山水가 秀麗하여 登極한 後로,
이 절을 願利로 定하였다.

傳說에 依하면 李太祖가 創
業하자 高麗의 王孫들은 無慈

悲한 慘禍를 당하고 있을 때,
李太祖는 顯夢으로 高麗太祖

의 큰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나라를 篡奪한 것으로 足

한 것이지, 어찌하여 나의
後孫까지 滅族하려 하는냐?

그로 인해서 내에게도 큰

崇義殿案內圖



마루체조의 天才

88의 꿈나무 金沃珍 양 貧家の 壁上에 薰氣찬 5金



작년 濟州市에서 개최한 少年
年體典에서 13세의 어린 나이
로 마루체조에서 三冠王을 稱
한 沃珍(都評議公派 熙元씨
말) 양은, 금년에 浦項大會에
서도 2個의 金메달을 획득,
國際적으로 不振한 體조계에
돌아다니면서 고무인 行商의

로 生計를 이어가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天賦의 素質을
꾸준한 努力으로 活用하여 이
같은 榮譽을 차지하게 되었고
학교 성적 또한 우수하다.
서울 東大門區 忘憂一洞 七
번지의 比隣인 熙元氏
가 는 마을의 班長인 熙元氏
집, 안방 벽에는 다섯개의 金
메달이 파사로운 薰氣를 뿜고
있을 뿐, 沃珍 양은 午前의
학교 수업을 마치면, 泰陵의
選手村에서 힘겨운 訓練에 熱
中하다 보니, 「한달에 二·三
次의 相面도 어렵다」는 熙元
氏는, 꿈은 크지만 充分한 뒷
바라지를 못해주는 일이 아쉬
울 따름이라 고 한숨 지었다.

福가 미칠 것이다」
顯夢을 받은 李太祖는 뒤
친 나머지 無學道師에게,
「高麗太祖의 靈魂이 그토록
靈驗이 있다면 石船이라도
能히 浮上시킬 수 있을 것
이니 太廟의 位牌를 石船에
실어 江물에 가라앉히라」
고 命하였다. 이에 無學이
命대로 石船에 神主를 실어
江上에 띄우니 그 우중찬 石
船이 가라앉지 않는지라. 李太
祖는 다시 命하여 無學으로
하여금 그 배를 타고 가서
向하는 곳에 모시라.
하니, 石船은 臨津江을 逆流
해서 積城郡 西方에 있는 神
主山(지금의 神芝山)에 到着
하였는데, 지금의 崇義殿에서
約 十里 以上의 上流인 漣川
郡 嶺山面의 한 나무터였다.
無學이 周邊를 두루 살펴보니,
果然 名地인 지라, 그곳에 모
실 作定으로 石船로 매어두고,
나무터에 留宿하였는데, 한밤
중에 雷聲과 번개를 同伴한
風雨가 大作하여 天地가 震動
하더니 아침에 보니, 하룻밤
사이에 石船이 削어 끊어지고
石船은 간 곳이 없었다. 無學
이 大驚하여 各地를 두루 찾

崇義殿沿革

- 李朝 太祖元年(1392), 創建하다.
- 定宗元年(1399), 太祖位에 惠宗·定宗·元宗 景宗·成宗·穆宗·顯宗을 追配하다.
- 文宗元年(1541), 崇義殿이라 命名하고 16 功臣을 庭配하다.
- 宣祖 9年(1575)丁未, 豊基 龍泉寺에 모셨던 高麗太祖 眞影을 移安하다.
- 正祖 13年(1789)己酉·高宗 5年(1869)·純宗 2年(1908)에 重修하다.
- 韓日合併後 朝鮮總督府에서 管理·王孫 後裔中에서 參奉을 任命하고 京畿道知事 主祭로 4月과 10月中丁日에 奉祝하다.
- 1950年·兵燹으로 全燒
- 1959年·殿址에 設奠位 奉祀 始作
- 1971年 12月, 國家文化財(史蹟 第223號)로 指定
- 1972年 12月, 國費로 基壇과 紅箭門工事 竣功
- 1973年 12月王氏宗財로 正殿 重建
- 1975年 12月 國費로 部臣廳 竣功
- 1976年 12月, 國費로 移安廳 竣功.
- 1977年 12月, 國費로 南門과 西門 竣功
- 1980年 12月, 垣牆工事完工(國費)
- 1984年 12月, 國費로 典祀廳·齋室(仰巖齋), 庫直舍, 化粧室 庫直舍 竣功.

(元榮記)